시로 읽는 성보순례
금동반가사유상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
삼국시대 ▶2면

현대불교

타인의 허물을 보지 말라
선하다 악하다 판단하지 말라
오로지 내 자신의 행동을 살펴라.
「법구경」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8월 1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08호 2012년 10월 3일 수요일

‘불교평론’ 살리기 교계 불씨 지핀다

전 · 현직 편집위원 확대회의 10월 초 예정

‘경허스님 주색과 삼수갑산’ 이라는 특별기고가 문제가 돼 최근 폐간이 결정된 〈불교평론〉을 살리기 위한 불교학계 등의 물밑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허우성 〈불교평론〉편집위원장 등을 비롯한 전 · 현직 편집위원들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확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기는 조율 중이고, 가능한 한 10월 초에 회의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준 편집위원(동국대 교수)은 “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확대회의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갔다. 하지만 워낙 급박하게 폐간이 결정돼 위원회에서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회의 날짜는 잡지 못했다”며 “최대한 조속히 회의를 열고, 현 상황에 대한 입장과 대안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SNS에서도 〈불교평론〉 폐간에 대한 아쉬운 소회와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공유돼고 있다.

우희종 현 편집위원(서울대 교수)은 페이스북 ‘부루나’에 게재한 글을 통해 “이것이 한국불교계의 현실인 듯해 부끄러움과 책임을 동시에 느낀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논문의 시각을 전부 공감하지는 않지만, 입장이 다른 논문이 제시됐다고 학술지가 폐간되는 것을 보면서 불교학계와 교단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재영 편집위원(불광연구원 상임연구원)도 “이번 사태는 근현대 불교사에서 초유의 필화사건”이라고 전제하며, “이 문제는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학계와 교계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다시 복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평론〉살리기에는 스님도 나섰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은 폐간 사태가 전해지자 가장 먼저 9월 24일 발표한 폐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법응 스님은 성명서에서 “교계의 매체를 아무리 찾아도 지식인 계층 중 어느 누구도 ‘폐간’이란 극단만은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거나 무슨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은 없다”며 “오늘의 불교 현실에서 불교학자들마저도 권력이나 문중, 이름 있는 승려나 집단의 눈치를 보고 순응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너무나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교평론 폐간을 반대한다. 다양한 견해의 글이 활발하게 발표돼서 오늘의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바로잡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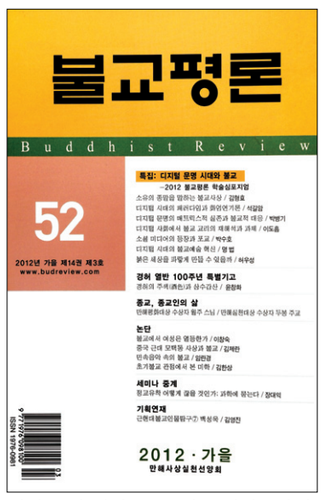
또한, 법응 스님은 〈불교평론〉 폐간을 막기 위한 기금 200만 원도 공개 기탁했다. 법응 스님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교평론〉을 살리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며 “기탁금은 폐간을 막기 위해 나서는 단체에 기탁하겠다. 불교계 유일한 논단인 〈불교평론〉이 다시 살아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교평론〉 폐간 여파는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행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와 조계종 불학연구소가 10월 10일 개최하기로 한 기념 세미나는 11월 말로 잠정연기됐다.

불학연구소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발제자들이 세미나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11월 종회 이후 동안거 결제 전에 맞춰 세미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폐간으로 인한 직접적 여파를 받고 있는 수덕사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 특별기고가 수록된 〈불교평론〉 2012년 가을 통권 52호. 이번 호를 끝으로 〈불교평론〉은 폐간될 위기에 놓였다.

복간 가능성 등 타진할 듯
법응 스님, 기금 공개기탁
SNS도 “살리자” 의견 봇물
경허스님 학술대회는 연기

함께 하는 한가위 합동 차례

물증정 등 다양한 행사로 이어졌다.

자양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장영심)은 추석을 맞아 9월 27일 복지관 내 강당에서 ‘추석 합동차례’를 진행했다. 지역 어르신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26일 ‘송편만들기’로 시작된 추석맞이 행사의 하나로 차례 후에는 노래자랑, 바둑대회, 선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선학원, 1백주년 기념관 건립

〈선학원사〉 편찬… 10월 20일 이사장 취임법회도

선학원이 1백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종로구 안국동 현 청사 내에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고, 〈선학원사〉 편찬 사업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재임된 제 18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은 9월 25일 선학원의 향후 사업 계획을 이렇게 밝혔다. 이에 선학원은 올해 안에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 발족하고, 계획수립과 재원마련에 나선다. 기념관은 250여 평 부지내에 지상 2층 지하 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설립 100주년을 기념한 〈선학원사〉도 편찬한다. 조선 말기부터 1970년대까지의 불교사를 총 망라해 2권 분량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선학원사〉는 편찬위원회를 구성한 후 2년 이내에 마무리 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그동안 ‘한국불교선리연구원’을 설립해 소장학자 학술지원 등 불교학 발전을 위해 펼쳐 온 각종 지원사업중 불교문화 부문도 신설해 범위를 확대할 생각이다.

승가노후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일 계획이다. 선학원은 65세 이상의 소속 분원 창건주와 분원장들을 위한 요양시설 마련과 승가노후복지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현재 540여개의 선학원 소속 사찰 중 요건이 해당되는 곳은 10~20여개 정도 되는 것으로 선학원측은 파악하고 있다.

법진스님은 승려노후복지 사업과 관련해 “재단 스님들이 고령화되면서 주지가 상주하지 않는 절이 늘고 있다. 그런 사찰을 정비해 복지시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학원은 10월 20일 오전 11시 서울 정법사에서 ‘제18대 이사장 취임법회’를 봉행한다. **김주일 기자**

제41차 원로회의 10월 10일 개최

차기 의장 등 선출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오는 10월 10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회의를 열어 차기 의장 선출을 논의한다.

이날 원로회의에선 현 원로회의 의장 종산스님의 임기만료를 2개월 앞두고 신임 원로의장 및 부의장 선출의 건을 다룬다. 원로의장 종산스님의 임기는 오는 12월10일이다.

아울러 원로회의 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입안한 종헌 개정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종헌 개정안엔 종정예하를 비롯한 종단 주요소임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후보 7명 확정

총추위 27일 회의서… 10월 4일 소견 발표

동국대 경주캠퍼스 차기 총장에 현직교수 7명이 후보자로 확정됐다.

동국대 총장추천위원회(위원장 대오)는 9월 27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동국대 경주캠퍼스 차기 총장후보로 7명을 확정했다.

이날 총추위는 총장 후보로 접수한 7명 전원에게 후보로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밝혔다. 후보자들은 모두 동국대 경주캠퍼스 현직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총추위는 10월 4일 후보자들의 소견발표를 진행한 뒤 법인 이사회에 후보자 3인을 최종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이어 법인 이사회가 총추위에서 추천된 후보 가운데 1명을 차기 총장으로 선임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08호 INDEX

종합 3
종교계, 청소년 인성교육 나선다
야단법석2 두번째 마당
조계종 UN서 평화 행사

국군의 날 특집 5

현대불교 법공양
ARS 후원
060-700-1080